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10-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불량 운전자 목격 경험과 교통수단별 안전 인식

2024. 12. 18.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불량 운전자를 목격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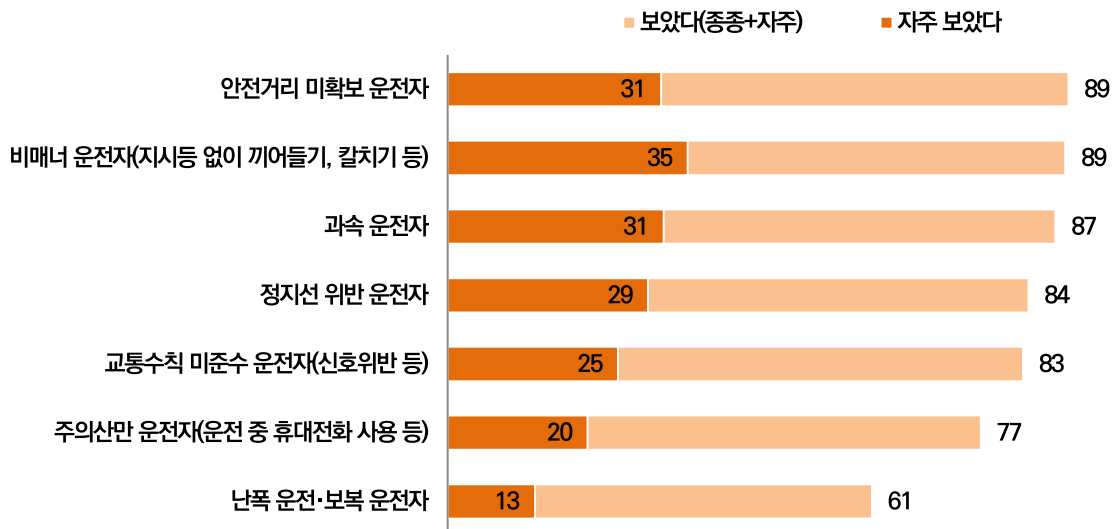
안전거리 미확보, 비매너, 과속 운전자를 자주 혹은 종종 목격했다는 응답 높아 불량 운전자 목격 경험은 최근 4년간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

최근 1년 동안 대다수가 불량 운전자를 종종 혹은 자주 목격했다고 답했다. 2021년부터 4년간 불량 운전자 목격 경험을 확인한 바, 4년 연속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운전자를 목격한 경험은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자(종종+자주 보았다, 89%)’, ‘비매너 운전자(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갈치기 등)(89%)’, ‘과속 운전자(87%)’, ‘정지선 위반 운전자(84%)’, ‘교통수칙 미준수 운전자(신호위반 등)(83%)’를 본 경험은 80%를 상회한다. 10명 중 8~9명 가량이 최근 1년 사이 교통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운전자를 목격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목격 경험은 낮지만, ‘주의산만 운전자(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77%)’와 ‘난폭 운전·보복 운전자(61%)’를 본 적 있다는 응답 역시 대다수이다. 다만, 난폭 운전·보복 운전자를 제외한 불량 운전자를 ‘자주’ 목격했다는 응답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10명 중 8~9명은 안전거리 미확보, 비매너, 과속, 정지선 위반 운전자를 ‘종종’ 혹은 ‘자주 목격’

(단위: %)



질문: 최근 1년(2023년 9월 이후) 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각각의 운전자를 얼마나 자주 목격하셨습니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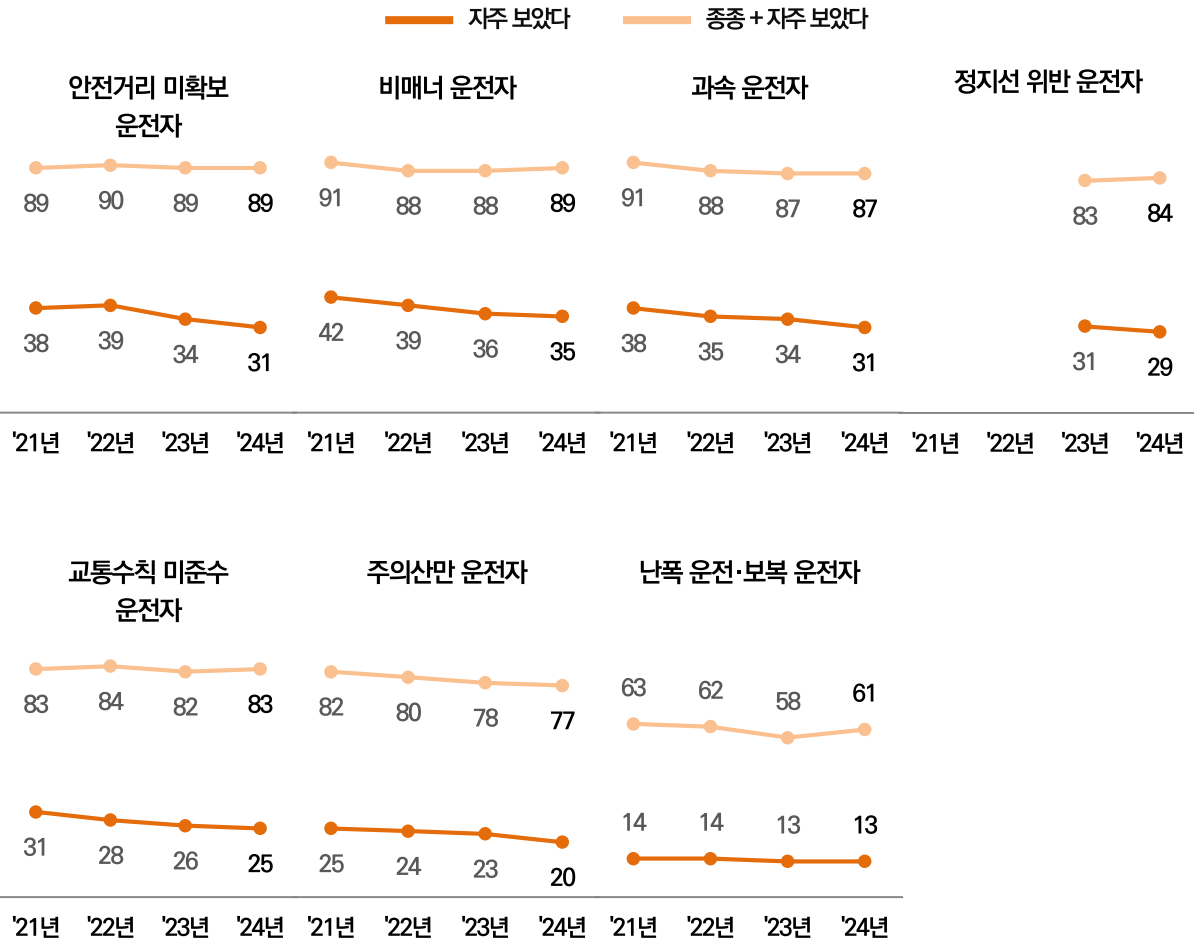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8. 12.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불량 운전자 목격 경험은 최근 4년간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 '자주 보았다' 점진적으로 감소 추이

(단위 : %)



질문: 최근 1년(2023년 9월 이후) 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각각의 운전자를 얼마나 자주 목격하셨습니다가?

비고: 정지선 위반 운전자'는 2023년 조사부터 포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8. 26. ~ 30. // 2022. 8. 12. ~ 16. // 2023. 8. 18. ~ 21. // 2024. 8. 12.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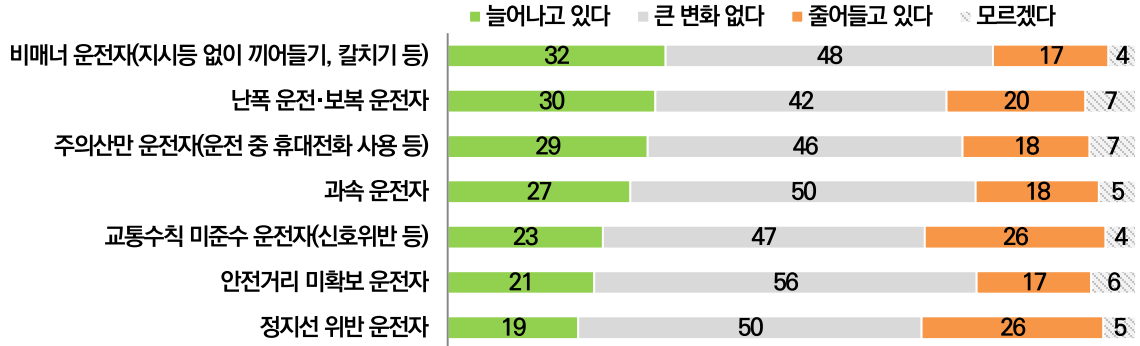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불량 운전자, 최근 1년간 큰 변화 없거나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 다수 조사 이래 처음으로 '늘어나고 있다' 감소세...증감 격차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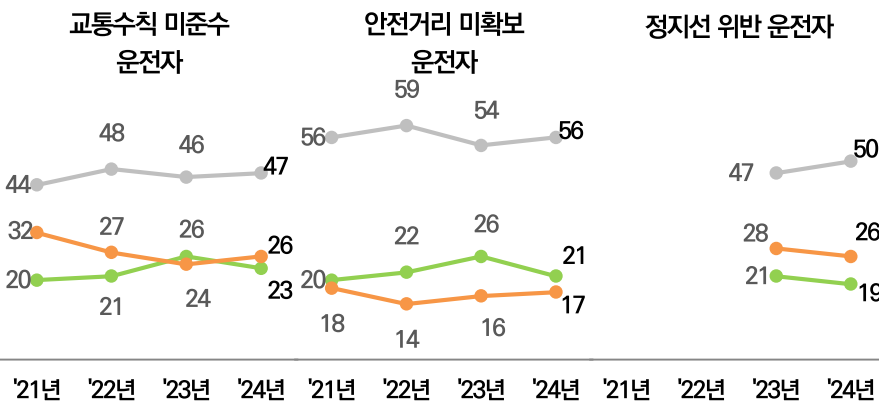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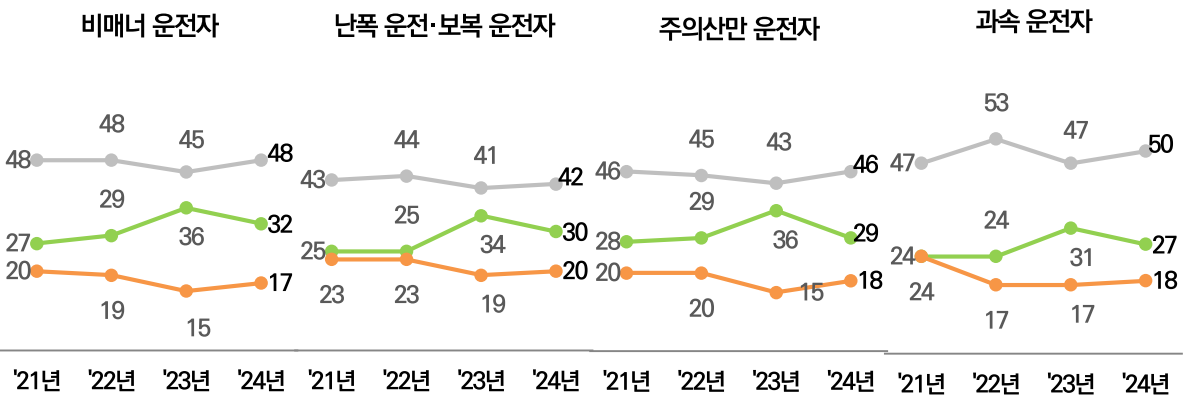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불량 운전자를 목격했다는 응답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불량 운전자 수에 변화가 없거나 늘고 있다는 인식 또한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 1년간 불량 운전자를 다수 목격한 가운데, 불량 운전자 수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다수의 불량 운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매너 운전자(증가 32%, 변화 없음 48%)', '과속 운전자(증가 27%, 변화 없음 50%)',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자(증가 21%, 변화 없음 56%)' 수가 늘거나 변화 없다는 인식은 80%에 달한다. 이외 불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그 수에 변화가 없거나 늘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2년 연속 불량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인식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불량 운전자, 최근 1년간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는 인식 다수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 조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

(단위: %)



— 늘어나고 있다 — 큰 변화 없다 — 줄어든다고 있다



질문: 최근 1년(2023년 9월 이후) 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각각의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비고: '정지선 위반 운전자'는 2023년 조사부터 포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 8. 26. ~ 30. // 2022. 8. 12. ~ 16. // 2023. 8. 18. ~ 21. // 2024. 8. 12.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비운전자는 운전자 대비 불량 운전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10년 미만 운전자, 2·30세대는****최근 1년 동안 불량 운전자 자주 목격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평소 운전 여부와 관계 없이 불량 운전자를 자주 목격했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비운전자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불량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운전자 대비 전반적으로 높다.

10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와 2·30대는 상대적으로 불량 운전자 목격 경험이 잦고, 향후 전망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불량 운전자를 자주 목격했고, 앞으로도 그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특히 비매너, 과속, 정지선 위반, 교통수칙 미준수, 주의산만 운전자를 자주 봤다는 경험과 부정적인 전망이 높은 편이다.

비운전자는 운전자 대비 불량 운전자 증가 우려해**10년 미만 운전자, 2·30대는 최근 1년 동안 불량 운전자 자주 목격했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특히 비매너, 과속, 정지선 위반, 교통수칙 미준수, 주의산만 운전자 목격 및 증가 전망**

(단위 : %)

사례수 (명)		비매너 운전자 (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칼치기 등)		과속 운전자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자		정지선 위반 운전자		교통수칙 미준수 운전자 (신호위반 등)		주의산만 운전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난폭 운전·보복 운전자	
		자주 목격	증가	자주 목격	증가	자주 목격	증가	자주 목격	증가	자주 목격	증가	자주 목격	증가	자주 목격	증가
전체		35	32	31	27	31	21	29	19	25	23	20	29	13	30
성별															
남자 (493)		37	29	35	23	32	21	29	17	26	21	20	26	15	27
여자 (507)		32	34	27	30	30	21	29	21	23	24	21	32	10	33
연령															
18~29세 (158)		42	40	43	37	32	28	41	27	34	34	18	40	12	37
30대 (149)		45	41	41	34	39	29	37	27	34	31	30	41	14	40
40대 (177)		37	40	34	31	32	26	25	18	30	25	22	33	16	41
50대 (196)		32	26	24	20	30	15	25	14	21	16	17	21	10	24
60대 (173)		27	26	26	22	29	16	24	14	17	16	20	20	14	22
70세 이상 (147)		24	18	20	18	22	16	22	16	13	16	14	21	10	17
평소 운전 여부															
운전함 (669)		38	30	34	23	33	18	28	15	24	19	21	27	13	27
운전 하지 않음 (331)		27	36	26	33	26	28	31	26	25	29	19	33	11	36
운전 경력															
10년 미만 (171)		48	36	40	29	38	23	33	20	31	28	25	41	14	36
10년 이상 (498)		35	28	31	21	31	17	26	14	22	17	19	22	13	24

질문: (목격 경험) 최근 1년(2023년 9월 이후) 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각각의 운전자를 얼마나 자주 목격하셨습니까?

(증감 인식) 최근 1년(2023년 9월 이후) 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각각의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8. 12.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도로 위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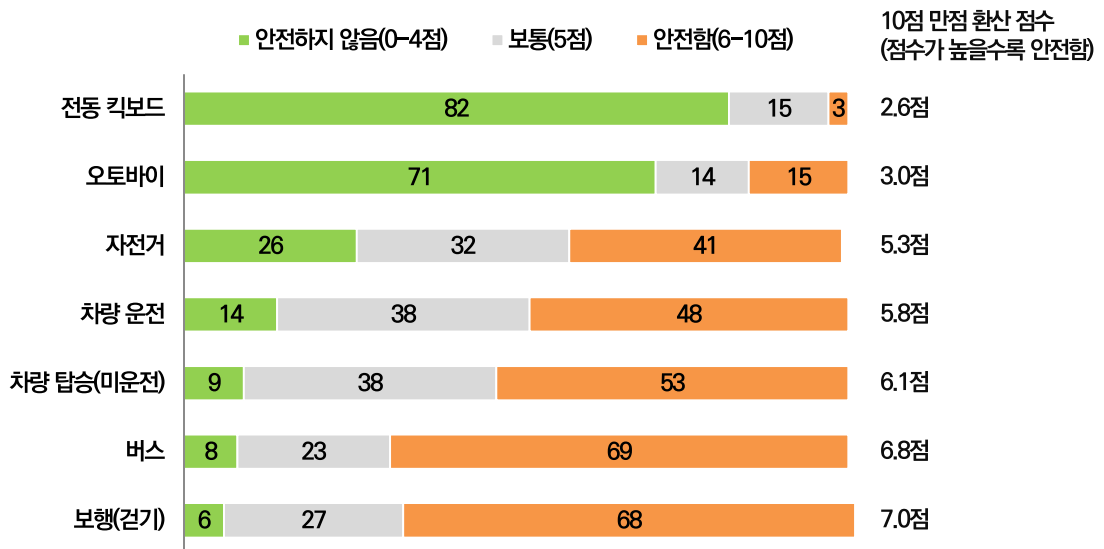
10명 중 7-8명,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이용 시 안전하지 않아 보행 시, 버스 탑승 시 안전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

도보상황 및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했다. 최근 1년 동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 중 82%, ‘오토바이’ 이용자 71%가 각각의 교통수단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용자 스스로도 해당 교통수단 이용 시 위험성을 인지한 것이다. ‘자전거’ 이용자 4명 중 1명(26%) 가량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가운데 보통 32%, 안전하다 41%로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보다는 안전하다는 인식이다.

‘차량 운전’, ‘차량 탑승(미운전)’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절반에 달하는 가운데, 38%는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보통 상태라고 답했다. ‘버스’ 이용자, ‘보행(걷기)’는 모두 안전하다는 인식이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10명 중 7-8명,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이용 시 안전하지 않아 보행 시, 버스 탑승 시 안전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

(단위 : %)



질문: 최근 1년(2023년 9월 이후) 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각각의 교통수단 이용 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0~10 사이 숫자로 응답해주세요.

비고: 각각의 교통수단을 최근 1년 사이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질문

응답자 수: 전동 킥보드 이용자 98명, 오토바이 68명, 자전거 379명, 차량 운전 715명, 차량 탑승 865명, 버스 882명, 도보 1,000명

조사기간: 2024. 8. 12.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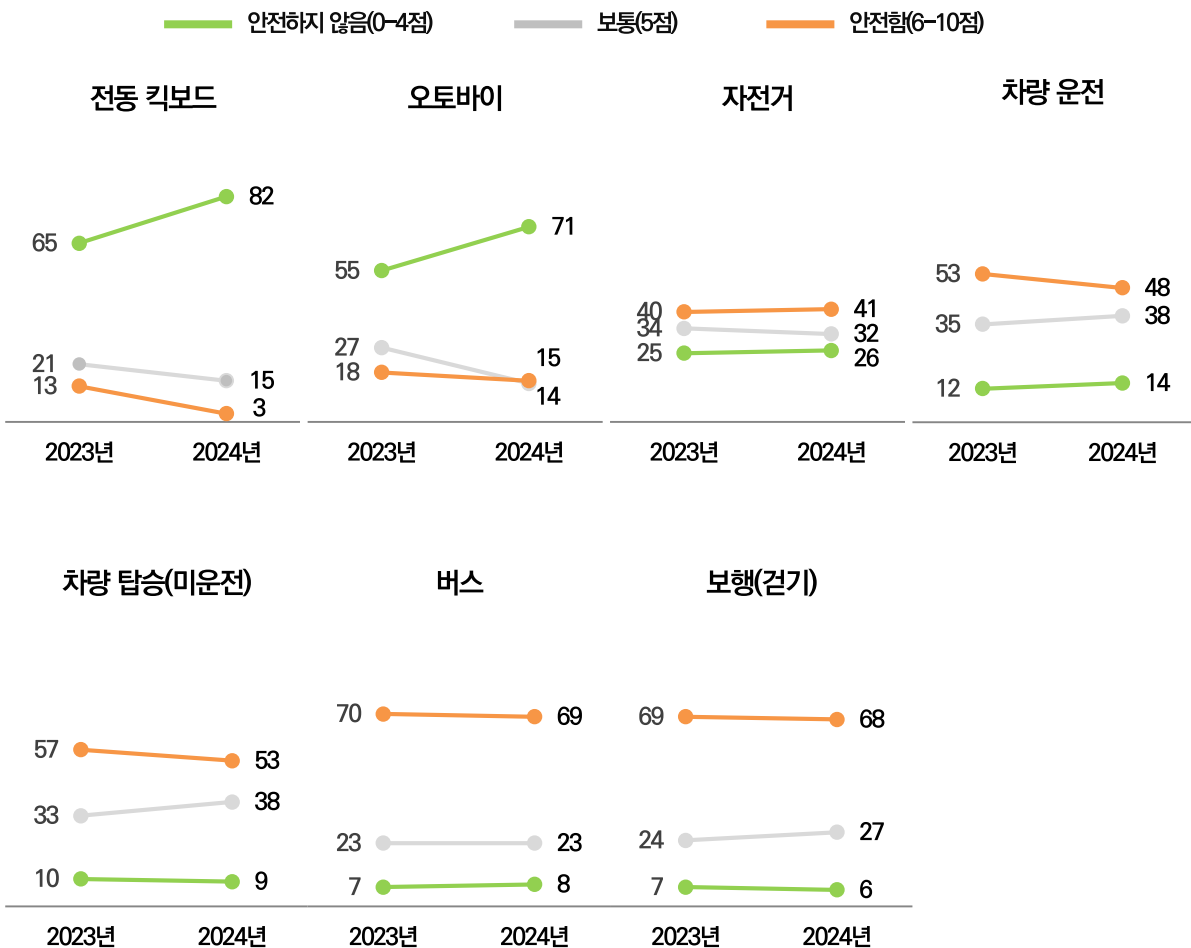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년 전보다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이용 시 느끼는 불안감 강화 차량 운전 혹은 탑승 시, 안전성 인식 소폭 하락

작년 대비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작년 대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각각 17%, 16%포인트 증가했다(전동 킥보드 65%→82%, 오토바이 55%→71%). 앞서 불량 운전자를 목격한 경험이 다수이고, 향후 불량 운전자의 수가 변함없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 가운데 차량 운전과 차량 탑승(미운전) 시 안전하다는 인식은 각각 5%, 4%포인트 감소했다(차량운전 53%→48%, 차량 탑승(미운전) 57%→53%). 이외 자전거나 버스 이용 당시, 보행(걷기) 시 안전성 인식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1년 전보다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이용 시 불안감 강화 차량 운전 혹은 탑승 시, 안전성 인식 소폭 하락

(단위 : %)



질문: 최근 1년(2023년 9월 이후) 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 각각의 교통수단 이용 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0~10 사이 숫자로 응답해주세요.

응답자 수: 각각의 교통수단을 최근 1년 사이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기간: 2023. 8. 18. ~ 21. // 2024. 8. 12. ~ 14.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7월 기준 전국 9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3,249명, 조사참여 1,402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3%, 참여대비 71.3%)
조사일시	• 2024년 8월 12일 ~ 8월 1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